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3호 【루계 제25091호】 주체104(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을설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의방문에는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무력기관 등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장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혁명투사로, 유능한 군사일군으로 자라나 수령옹위의 제1선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한 호위전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항일의 로투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를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군군인들을 친위전사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한 진짜배기혁명가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당의 충직한 로혁명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였던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는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결사보위하였으며 주체혁명무력의 발전행로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겼다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실했던 로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5호 주체104(2015)년 11월 8일 평양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충실하였던 리을설동지는 항일대전의 간고한 나날부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세 호위전사, 항일의 로투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인 리을설동지는 우리 혁명이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제1선에서 호위하여온 제일충신이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우리 당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나는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2015년 11월 8일 18시부터 11일 18시까지 조기를 띄울것.
2.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조기를 띄우는 기간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 말것.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을설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를 여러 나라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2016년 5월초에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결정서는 지금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정한다고 결정서는 밝혔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터네트통신 렌따. 루, 중국의 《환구시보》, 《료녕신문》, 신화망, 길림망, 동북보도망, 이란의 프레스TV방송, 이리브방송, 메흐르통신,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 딴마신문 《데모크러씨》, 오스트리아의 ORFTV방송, 영국신문 《가디언》,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AP통신, CNN방송, 폭스뉴스, 일본의 지지통신, 《아사히신붕》,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결정서를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집행리사회, 이딸리아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몽골민주당 위원장, 몽골인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탄자니아혁명당 총비서, 파키스탄인민당 공동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뛰르끼예조국당 위원장,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몰도바공화국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전국지도자,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모리따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꽁고사회주의당 전국위원장,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민주꽁고 루뭄바주의통일당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찔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찔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공산당 전국위원장과 정치 및 국제비서, 브라질 맑스-레닌주의공산당 총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위원장,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베네수엘라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뻬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총서기, 뻬루사회혁명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우루과이혁명적공산당 총비서,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수리아아랍공화국 군대 및 무장력 부총사령관인 국방상, 까자흐스딴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 정치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부총비서, 알제리로동자당 대외관계비서, 에찔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로동자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필리핀, 까타르,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뛰르끼예, 오만,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네데를란드,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마쟈르, 말따, 몰도바,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뽀르뚜갈,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가나, 기네, 나미비아,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말리, 모리셔스, 모리따니, 모잠비끄, 베닌, 세네갈, 잠비아, 적도기네, 꽁고, 민주꽁고, 튜니지,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에찔트, 에티오피아, 도미니까, 미국,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꼴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에꽈도르, 엘쌀바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이 장장 70년간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백승에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주도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엘 쌀바도르 파라분도 마르띠민족해방전선, 뽀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편의를 첫자리에 놓으시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이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최고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이 제시한 건축학적요구이다.

모든것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려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가 자랑스러운 창조물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였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습니다.》

주체98(2009)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을 찾으시였다. 사과와 배 그리고 바나나를 비롯한 여러종의 과일들이 전시된 1층매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기류와 고기가공품이 진렬되여있는 2층매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2층매장에 진렬되여있는 고기류와 고기가공품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안광에는 시종일관 미소가 어려있었다.

신선한 고기를 받아들고 기쁨에 겨워할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상품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이르는 곳마다에 돼지공장을 건설하여놓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하였다고, 우리가 건설한 돼지공장들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인민들에게 복무할 또 하나의 상업봉사기지가 마련된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그리도 환하게 웃으실가.

일군들도 흥겨워졌다.

하지만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결코 만족이 없음을 일군들은 곧 깨닫게 되였다.

2층매대들을 다 돌아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서인지 걸음을 멈추시였다. 일군들이 의아해하는데 그이께서는 여기에 승강기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이였다.

한 일군이 2층짜리 건물이므로 설계할 때부터 승강기를 예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층고도 별로 높지 않고 1, 2층사이 계단이 불과 20여개밖에 안되는 건물에 승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허나 모든것의 첫자리에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놓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생각은 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상점은 2층매대로 올라갈수 있게 계단만 만들어놓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늙은이들인 경우에는 상품을 사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보통강상점에 계단만 만들어놓은것은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일없겠지만 나이많은 사람들과 녀성들이 상품을 사가지고 층계를 오르내리자면 불편을 느낄수 있다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인민들의 편의를 그저 도모하는것이 아니라 사소한 불편도 빈틈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놓을줄 알아야 한다시며 승강기를 꼭 놓아주라고 재삼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곧 승강기설치가 시작되였으며 결국 상점은 얼마 지나서야 문을 열게 되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사소한 불편도 빈틈도 없이 완전무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인민성의 기준이였다.

강 원 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캄보쟈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 뻰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페하

나는 캄보쟈왕국독립 62돐에 즈음하여 국왕페하와 친근한 캄보쟈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캄보쟈인민이 존경하는 국왕페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국왕페하가 건강하고 행복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1월 8일 평 양

로작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성천강구역원림시설사업소에서

함흥시 성천강구역원림시설사업소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아침독보시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종업원들이 가슴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내용을 자자구구 새기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국토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렴학림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자신들부터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종업원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들어와 도시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역안의 가로수들을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교체하고 그 관리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잔디재배장과 새 품종의 코스모스재배장을 꾸려놓고 도시의 록화조성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그리고 새로 수백㎡의 도로피치포장을 진행하여 구역안의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가로등의 정상관리에서도 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경축한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붓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

금성청년출판사창립 70돐을 맞으며

전설에 담긴 력사의 진실을 밝혀주시며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을 통해 사람들은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를 알게 된다.

그속에는 전설도 있다.

하지만 전설을 안다고 하여 누구나 력사의 진실을 옳게 가려보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조국의 력사와 자기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잘 알아야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감을 간직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1월 어느날이였다.

몇명의 학생들이 대동강반에 있는 평양종앞에서 종의 웅장한 모양과 고색짙음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학시간에 배운 에밀레종에 대한 전설로 이어졌다. 한 학생이 그 전설의 어린애는 어머니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어린애를 잃었으니 참 한심하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애가 죽은것이 왜 어머니의 잘못이겠는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에밀레종은 신라의 봉덕사종의 다른 이름이다.

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낸 재물로 종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웬일인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중들은 종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것은 한 녀인때문이라고 하였다. 재물을 내놓으라는 강박에 빼앗아갈것은 다 빼앗아가고 남은것은 이 아이 하나뿐이니 애라도 가져가라고 울분을 토했던 녀인이였다. 그후 중들은 잔인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것을 빼앗아 종을 다시 녹이는 쇠물가마속에 넣었다. 다시 만들어진 종에서 어린것이 엄마를 부르는듯 《에밀레, 에밀레…》 하는 처량한 소리가 울려 에밀레종이라고 부르게 되였다는 전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전설을 두고 에밀레종이 만들어지던 때에 있은 모든 일들은 당시 지배계급이 인민들을 얼마나 악착하게 략탈했는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학생들의 견해를 바로잡아주시였다.

봉덕사의 에밀레종은 말그대로 인민들의 피와 땀과 생명으로 만들어진것이였다고, 인민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런 기막힌 이야기까지 나왔겠는가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나 놓고서도 종교를 앞에 내걸고 인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략탈한 지배계급의 착취적본성을 잘 알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잠시 련광정과 대동문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평양에만도 문화유산들과 유적들, 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펴나가시였다.

착취제도하에서 이 모든것의 창조자는 근로하는 인민들이였지만 그 향유자는 착취계급이였다고, 그래서 에밀레종과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도 생겨난것이라고, 이런 비극은 오직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완전히 없어질수 있다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겨들던 학생들은 저저마다 우리는 그런 불행을 모르고 살고있으니 참으로 행운아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생각을 잘못하고있다는것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의 말을 부정하시며 우리는 행운아들인것이 아니라 행복한 세대들이라고,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불행이 우리 세대에 와서 끝장난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다시금 깨우쳐주시였다.

오늘의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행복할수록 계급적원쑤들을 잊지 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과 오늘의 행복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더 힘껏 노력하자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학생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력사가 남긴 하나의 전설을 통하여서도 우리 새 세대들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생활해나가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리금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당창건 70돐을 계기로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이 땅에 활짝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그 이름도 존엄높은 금성청년출판사는 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들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백두의 넋을 이은 청년투사로,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워내는데서 금성청년출판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참으로 거대한 교양자적, 선전자적위력을 발휘하였다.

오늘날 조선청년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령마루에 올라서서 걸어온 70년력사를 돌이켜보는 금성청년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충직한 대변자, 청년들의 투쟁과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 교과서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주체적청소년출판물건설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금성청년출판사는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청년운동으로 주체혁명의 닻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날》신문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지도하시여 우리 당 출판물건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출판물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불멸의 업적은 해방후 지체없이 청소년출판기관을 내오고 청소년교양을 위한 출판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하서야 할 일이 많고많았지만 청소년출판기관창립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새 세대들에게 하루빨리 혁명적출판물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몸소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청소년출판기관의 청사로 쓸 건물도 정해주시고 편집력량과 출판기자재, 자금문제를 비롯하여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34(1945)년 11월 9일 금성청년출판사의 전신인 평양아동문화사의 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금성청년출판사의 창립은 우리의 청소년출판물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이곳 출판사의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참으로 숭고한 어버이수령님의 후대사랑이 깃들어있다.

출판사에서 만든 《소년신문》을 몸소 보아주시고 종이의 질이 낮아 어린이들의 눈이 나빠지겠다고 걱정하시면서 좋은 종이로 만들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쟁을 겪는 아이들에게 출판물만은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수물자를 나르는 차에다 청소년출판물을 실어나르도록 하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전시청소년출판물수송체계까지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주체43(1954)년 1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청소년출판물을 독자대상의 특성에 맞게 더 잘 만드는 한편 중학생들을 위한 《새 세대》잡지를 새로 발간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전설같은 일화들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청소년출판물령도사에는 당안에 기어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발행이 중지되였던 《청년생활》잡지를 본래 발행하던 부수대로 계속 발간하도록 해주신 사실, 어둠이 깃든 깊은 밤 사로청중앙위원회(당시)청사를 찾으시여 주체형의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다시 내오도록 하신 사연을 비롯하여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의 청소년출판물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탈색과 변질을 모르고 당적출판물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한 근본원천이였다.

금성청년출판사는 위대한 장군님을 또 한분의 영명한 스승으로 높이 모시여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43(1954)년 5월 22일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편집부서들과 출판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청소년출판물을 철두철미 수령의 출판물, 당의 출판물로 건설하고 청소년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만드는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력사에 길이 빛날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 대상화, 통속화수준을 높이고 과학성, 진실성, 친절성을 보장할데 대한 사상, 편집내용과 형식을 개선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주체의 청소년출판물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된 1970년대에 청소년출판물을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출판물로 정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판사의 명칭을 금성청년출판사로 하도록 하심으로써 출판사를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출판사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진정 절세위인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금성청년출판사는 주체의 궤도에서 단 한치도 탈선하지 않고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곧바로 걸어올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들로 키우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었다.

금성청년출판사와 《새날》신문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롤전기재와 사진설비, 콤퓨터,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풍치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새 청사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취재길에서 뜻하지 않게 사경에 처했던 한 기자를 위하여 사랑의 직승기를 띄워주시고 몸소 항로선택과 비행지휘까지 해주시여 끝내 소생시켜주신 전설같은 이야기, 3명의 공훈기자들의 건강상태를 료해하시고 잘 치료해줄데 대한 친필을 보내주신 눈물겨운 사연을 비롯하여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은 세월의 언덕넘어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우리의 청소년출판물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며 금성청년출판사를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청소년교양의 강력한 거점으로 꾸리시기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가실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소년출판물이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청소년들속에서 5대교양을 강화하고 고상한 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시키도록 할데 대한 문제, 자립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출판물의 편집방향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지구상에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청소년출판보도기관들이 있지만 절세의 위인들을 영명한 스승으로,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령도와 사랑속에 자랑찬 행로를 수놓아온 영예롭고 존엄높은 청소년출판기관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금성청년출판사가 걸어온 70년력사는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청소년출판물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력사이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붓대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헌신적투쟁과 자랑찬 위훈의 로정이였다.

당과 인민은 장장 70년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에 거대한 기여를 한 금성청년출판사의 위훈과 공적을 잊지 않고있으며 출판사의 뜻깊은 창립일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드는 믿음직한 붓대가 되여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걸어온 금성청년출판사가 앞으로도 우리 당의 충직한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것을 조국과 인민은 굳게 믿어마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조향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자

세폭의 붉은기높이 힘차게 전진

각지 당조직들에서

각지 당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당조직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대학에서 일하며 배우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교육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학당조직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대중교양거점들을 정중히 꾸려놓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 교원들과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워가고있다.

대학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최신형콤퓨터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리용을 잘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이 당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대학에서는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부시키기 위한 첨단실험설비들과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람을 개발하여 교육사업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대학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고 교무행정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였으며 대학구내에 1만30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짧은 기간에 축사와 양어장을 잘 건설하여 후방공급사업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불같은 충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과 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리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대중교양거점들을 정중히 꾸려놓고 5대교양을 강화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 서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제작소에서는 혁명사적물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의 농도를 측정할수 있는 성능높은 원격측정장치를 집체적지혜로 설계제작함으로써 사적물들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영구보존할수 있게 하였으며 새로운 특수전자요소마스크기술을 확립하고 공기정화소독기와 무선송수신처리소자를 비롯한 수백종의 전용집적회로를 설계하는 성과를 거두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제작소에서는 구내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새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어 환경을 개선하고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과 양어장, 온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과 후방기지들을 그쯘하게 꾸려놓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있다.

두단오리공장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3대혁명과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호동들의 무인화실현을 위한 사업과 알깨우기실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원격교육대학강의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게 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임으로써 오리고기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부단히 높이 제기하고 줄기차게 실현하는 과정에 공장은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이밖에도 녕원군송배전소, 창성국수집, 자강도 고풍잠업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수행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결의드높이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여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왜 인재선발을 앞세웠는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인재들을 통하여 대중을 기술혁명수행에로 어떻게 추동해나가야 하는가.

최근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이 문제에 실천적인 해답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소앞에 산소열법용광로개건공사를 다그치는것을 비롯한 전례없이 아름찬 현대화과제가 제기되였던 때의 일이였다.

많은 단위들에서 그런 경우에 사업의 첫걸음을 떼는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그들에 구애되지 않았다. 새로운것을 시도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모임에 앞서 기업소적인 인재선발사업을 치밀하게 작전하고 실행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기업소에 기술자, 기능공들이 얼마나 있다는것을 과연 몰라서 그러는가. 대개 이런 눈치들이였다.

그러나 책임비서 오순호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자기들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절박한 현대화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할 인재선발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온 기업소적인 관심이 인재선발에 쏠리였다.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였다.

인재선발기준은 지난 기간 기술혁명수행에 이바지한 실적이였다.

당위원회에서는 한명한명을 바로 평가하고 옳게 선발하기 위하여 거듭되는 토의를 하였다. 그렇게 선발한 인재들에게 현대화과제수행의 가장 중요한 몫을 맡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축으로 한 기술력량을 새롭게 편성해주었다.

선발된 기술자, 기능공들의 자부심은 실로 컸다.

그들은 온넋을 기술과제수행에 깡그리 바쳐갔다.

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기울이였다.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일군들이 먼저 포착하고 앞질러 풀어주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정양소를 리용하도록 한것도 그중의 좋은 실례이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지 못할 인재들의 뛰여난 과학기술실력이 당조직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비상한 정신력과 결합되여 자랑찬 창조의 열매들을 맺었다.

박광모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방대한 설계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등 현대화과제수행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그뿐이 아니다. 실력전을 벌려 인재들의 대렬에 하루빨리 들어설 배심을 가지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떨쳐나섰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종업원들도 승벽심을 가지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기업소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개건, 1만5000㎥산소분리기설치공사, 망간철생산공정확립을 비롯하여 그처럼 방대하기 이를데 없는 현대화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내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정수

사상을 틀어쥐면 만사가 풀린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최근 몇해동안에 기업소의 여러 단위들이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떠밀어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어느날,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사업하게 된 리창길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기업소의 면모와 생산실적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던것이다.

방도를 찾아 모대기는 그의 머리에 떠오른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이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방도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일군들과 당원들, 종업원들을 수령결사옹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생각을 한 그의 결심은 옳은것이였다.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석탄공업부문의 첫 련합기업소답게 대중운동의 불길을 지펴나가는데서도 앞장설 그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일군들과 당원들, 종업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자면 단위에 깃든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종합체계화하여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당위원회는 불멸의 사적을 발굴, 고증하는 사업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당책임일군은 령도사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열정을 바쳐나갔다. 당위원회비서 변창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성, 중앙기관과 해당 일군들을 찾아다니며 사적자료를 하나하나 고증해나갔다. 그 과정에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조직된 첫해인 주체66(1977)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5배의 석탄을 더 생산하게 되였다는 귀중한 자료들이 알려지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위대성교양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련합기업소청사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게 한것이다.

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당원들, 종업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한것이 특징적이다.

형봉탄광 솔골갱을 직관선동의 본보기단위로 정한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갱에 내려가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일군들의 방조와 지도밑에 속보판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지난 7월 현지에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후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탄광의 채탄중대, 굴진소대막장들에 구호와 표어들이 새롭게 게시되여 대중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의 당사자인 생산자대중과의 사업이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 그들을 결의목표실현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어느날 월봉탄광 회둔갱에 내려갔던 당책임일군은 한직종에서 18년동안이나 일해오고있는 정비공 김대운동무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사업도 맡아보고있는 그의 얼굴에 이따금 비끼군 하는 그늘은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있었다.

당책임일군은 그와 여러번 만나 정을 주고 믿음을 주었다.

당책임일군의 진정은 그를 분발시키였다. 그는 맡은 일을 하면서 탄광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적극 벌려 종업원들을 결의목표실현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 과정에 그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것은 탄광일군들에게 결의목표실현에서 종업원들과의 사업을 감정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니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쭉쭉 풀려나가게 되였다.

그렇다. 사상을 틀어쥐면 만사가 풀린다.

본사기자 손영희

조건보다 우선시한 사상관점

안악군 룡산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안악군 룡산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문화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사업이 예견했던것보다 잘 진행되지 못하던 때의 일이였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리당비서 김광창동무는 그저 스쳐보낼수 없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마을꾸리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것을 놓고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농사일을 핑계대고있었다. 애초에 농사도 잘 지으면서 마을꾸리기도 본때있게 하자고 목표를 높이 내걸었는데 조건타발을 앞세우고있었다. 물론 농사일에 힘을 넣으면서 마을꾸리기도 다같이 밀고나간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작업반에서는 꾸리기를 좀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이였다.

이것은 농장적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앞서나가는 제6작업반의 경우와 너무도 대조되였다. 조건으로 볼 때 두 작업반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제6작업반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문화혁명결의목표에 반영된 꾸리기과제를 보란듯이 해제끼였었다. 작업반의 더 좋은 래일을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열정이 낳은 성과였다.

(조건보다 사상관점이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안고 제4작업반에 내려간 리당일군은 제6작업반의 생동한 실례를 놓고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분발시키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일시 주춤하였던 자신들을 돌이켜보았다. 난관극복정신, 난관돌파정신이 투철해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이 세운 문화혁명결의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앙양된 작업반원들의 열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마을꾸리기전투장이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활무대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들끓는 작업현장에서 이룩되는 성과들을 속보판을 통하여 기동성있게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로력이 긴장할 때에는 리당위원회일군들이 현장에 달려나가 구슬땀을 바치였다.

세멘트와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가 부족할 때에는 두팔을 걷어붙이고 뛰여다니면서 해결해주었다.

이에 고무된 제4작업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일을 기백있게 밀고나가면서도 높이 세운 마을꾸리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지난해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리당위원회에서는 리의 문화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더 큰 걸음을 내짚었다.

최근에만도 리에서는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많은 농장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배우려는 열의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극심한 가물을 이겨내며 농사를 짓는 속에서도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각급 당조직들이 이들의 사업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

지금 어느 단위에서나 문화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 꾸리기사업들이 진행되고있는데 결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속에서 벌어지는것은 아니다. 조건이 어렵고 불리하기는 서로 어슷비슷하다. 그런데 실적이 높은 단위들을 보면 례외없이 일군들이 꾸리기사업을 대하는 사상관점이 확고하다.

조건보다 사상관점을 우선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결의목표실현에로 불러일으켜

룡천군 양서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조직전개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작업반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잘 세우도록 이끌어주면서 공공건물들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과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발작업반에 본보기를 창조하고 이 작업반원들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투쟁을 잘해나가게 하면서 제1, 3, 6작업반들에서 그 모범을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한조항씩 착실하게 수행해나가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잘하고있다.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내세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들을 실현하고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수 있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박금옥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또 한명의 혁신자를 등록한다.
—모란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값높은 평가에 비낀 뜨거운 헌신

백암군 원봉농장 제2작업반 2분조 선동원 김순복동무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대규모의 감자산지로 일떠서고있는 백암군 덕포지구!

감자농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대자연개조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들끓고있는 백두대지에서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태우며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한 초급선전일군이 있다.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의 영예를 지닌 백암군 원봉농장 제2작업반 2분조 선동원 김순복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사나 선동원은 실지로 학습을 조직운영하고 강연이나 선동에 출연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동원하여야 할 초급선전일군입니다.》

20년전 선동원으로 사업하게 된 김순복동무의 가슴은 끝없이 부풀었다.

선동원은 당정책의 선전자, 군중의 교양자로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

초급당일군의 말은 그의 생각을 깊게 하였다.

그는 선동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자자구구 학습하였다. 초급당일군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초급선전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주의깊게 들어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사상의 무기를 틀어쥐고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지펴올린 적극적인 실천가들이였고 자기보다 남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열혈의 인간들이였다.

(선동원의 본분을 다하려면 정치사상적수준이 높고 남보다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김순복동무는 영농공정의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짜내여 선동사업과 관련한 학습을 하였고 선동원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당보가 배포되면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한 기사들을 밑줄을 그어가며 학습하였고 길을 가다가도 방송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 전해지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군 하였다.

포전에 나갈 때마다 그의 어깨우에는 자그마한 멜가방이 걸쳐지군 하였다. 그안에는 그날 분조원들속에서 진행해야 할 선동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아침독보뿐아니라 속보발간, 노래보급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의 폭을 넓혀나갔다.

김순복동무는 분조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한마음한뜻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어느날 한 분조원의 출근률이 높지 못하여 그의 집에 갔던 김순복동무는 불쾌한 인상을 받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였다. 그날에 있은 일을 두고 초급당일군은 그에게 선동원은 대중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고 심장을 움직일줄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일군의 진심어린 말은 김순복동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날 김순복동무는 그를 찾아가 사죄하였고 사업과 생활의 여러 계기를 통하여 그와 가까이하였다.

어느날 김순복동무는 그의 남동생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는것을 알고는 남먼저 달려가 축하해주었다. 남동생이 떠나는 날에는 그 동무와 함께 멀리 100여리길을 걸어 연암역에까지 갔다. 렬차를 탄 동생을 손저어 바래워주는 선동원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제인가 김순복동무가 분조원들로부터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한 녀성분조원을 만난적이 있었다. 김순복동무가 따끔히 타일러주자 자존심이 강한 그는 아니쩔게 생각하면서 눈을 내리감았다. 김순복동무는 그 녀성분조원의 성격이 왜 거칠어졌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는 년로한 시부모를 모시고있는데다가 여느 집보다 식솔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다투다가 다른 작업반에 가겠다고 제기하는것이였다. 김순복동무는 이때처럼 안타까움으로 모대긴적이 없었다.

(선동원인 내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로부터 온 결과가 아닌가. …)

그후 김순복동무는 그 녀성분조원과 만나면 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반갑게 대해주었고 휴식일이면 그의 집에도 찾아가 바쁜 일손을 도와주었다. 그가 속상해하는 일이 생기면 친자매의 심정으로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었고 걸린것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나섰다.

김순복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그후에도 김순복동무는 그 녀성분조원을 인내성있게 설복하고 교양하였다. 마침내 그는 작업반적으로 소문난 혁신자로, 당원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김순복동무가 품을 들여 손잡아 이끌어준 농업근로자들중에서 다섯명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고 그중에서 세명은 분조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녔다.

온 작업반이 경사에 넘쳐있던 그날 농업과학기술선전실에 들어서던 그는 문손잡이를 쥔채 문득 멈춰섰다.

《오늘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받고보니 2분조 선동원부터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래요.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우리 작업반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김순복동무는 자리에 못박힌듯 섰다. 대중의 평가, 작업반원들의 진심어린 평가를 듣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가슴에는 남다른 긍지가 가득히 차올랐다.

김순복동무는 이런 훌륭한 작업반원들을 위하여 선동원의 본분을 다하며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을 위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되리라 더욱 굳게 마음다졌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석탄을 극력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애국가의 구절에도 있듯이 온갖 자원도 가득한 우리 나라에는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석탄자원이 풍부하다.

석탄은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수십개 나라에 매장되여있는데 현재의 채굴수준에서 일정한 기간 석탄자원을 리용할수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석탄은 에네르기, 금속공업, 화학공업, 재료, 농업 등 그 리용 및 련관분야가 참으로 넓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석탄은 검은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탄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의 강위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전후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던 그 시기부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탄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고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캐낸 석탄에 철저히 의거하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체로 일관된 우리 경제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애국유산이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당과 조국앞에 지닌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돌격전에 떨쳐나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건은 불리하고 점령해야 할 목표는 높지만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의 길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섰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충정의 불길속에 마련되는 석탄을 극력 절약하고 그 리용분야를 확대하는 동시에 환경보호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석탄절약투쟁의 불길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인 전력, 철도운수부문에서 먼저 지펴올려야 한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같은 량의 석탄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탄광에서 해당 목적지까지 석탄을 운반하는 전구간에서 한g의 석탄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내각에서는 해당 감독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계량계측사업에서 편향이 없도록 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탄광들의 계획수행률에 대한 질적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석탄의 종합적리용분야를 확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자들이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에 의거하여 석탄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현실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를 내놓는것만큼 최후승리가 앞당겨지며 인민의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석탄생산과정에 나오는 버럭을 연료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석탄을 극력 절약하면서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수산물생산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평안남도수산관리국에서 3만여t의 어획고를 기록한 기세로 계속 혁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수산관리국 일군들과 각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이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섰다.

10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장식한 기쁨이 한껏 차넘치고있는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통하여 뜨겁게 새겨진것이 있다.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서해물고기생산량의 큰 몫을 맡은 도수산관리국에서는 첫 출어를 지난 시기에 비해 한달이상 앞당겨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240hp고기배를 비롯한 11척의 안강망선들과 운반선들을 자체로 무어내고 어구의 대형화를 실현하였으며 거의 모든 고기배들을 쌍통식으로 개조하는 등의 큼직큼직한 성과들도 련이어 거두었다.

이것은 최근년간 물고기잡이와 배무이, 현대화실현에서 보기 드문 실적으로서 당의 수산정책관철투쟁에 떨쳐나선 평안남도수산관리국 일군들과 각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의 남김없는 과시이며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고있다.

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소식에 접한 이곳 일군들과 각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은 지금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온 기세를 늦추지 않고 비약의 박차를 가하면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도수산관리국 책임일군인 김성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힐치 않은 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인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다시한번 수산물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였다.

올해 도수산관리국앞에는 3만여t의 년간 수산물생산과제가 나섰다. 지난해보다 근 1만t이나 더 많은 생산목표였다. 어구와 고기배를 비롯한 생산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도수산관리국의 당, 행정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치렬한 겨울철배수리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어로공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며 방도를 거듭 토의하였다. 사무실에서는 찾을수 없었던 증산의 예비들이 속속 나왔다.

고기배들의 수리정비를 한달이상 앞당겨 바다에 진출시키면 그만큼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할수 있다, 외통식으로 된 안강망선들을 쌍통식으로 개조하고 현재 리용하는 어구들의 대형화를 실현하면 높아진 수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다.

도수산관리국적인 작전에 따라 각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당창건기념일까지 3만여t의 수산물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 투쟁열, 경쟁열이 세차게 휘몰아친 일터마다에서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드세찬 공격전이 벌어졌다.

각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1월까지 물고기잡이준비를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강추위와 싸우며 선체보수와 기관수리를 다그쳤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은 편망작업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울려퍼졌다.

본격적인 어로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륙상에서의 모의훈련을 맹렬히 하면서 앞선 어로방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도 벌어졌다.

2월초부터는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을 까내며 도수산관리국의 모든 고기배들을 바다에 띄우기 위한 전투를 벌려 3월 하순에야 서해에서 어로전투를 벌릴수 있다던 기존관례를 타파하였다.

날바다와 강추위와 싸우며 맹렬한 어로전에 남먼저 진입한 이곳 도수산관리국의 근 100척의 안강망선들로 몽금포중심어장은 벅적 끓어번졌다. 일군들은 고기배들을 타고 선장, 어로공이 되여 조타를 잡고 그물도 끌어올리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였다. 전투장마다에 배낭을 풀고 걸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즉시에 기동적으로 세우기 위해 일군들은 침식을 잊고 뛰여다니였다.

이룩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순간의 답보나 침체도 모르는것이 이들의 투쟁본때이다.

도수산관리국아래 그 어느 단위에서나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새로운 투쟁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내닫는 어로공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일군이건 어로공이건 모두가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인 기세로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며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 불같이 살며 투쟁하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생산성과로 빛내이자,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이것은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심장의 웨침이다.

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들끓는 현장에 내려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온 김성두동무는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대중의 정신력을 다시금 총폭발시키는 기수가 되고 퇴관이 되여 드세찬 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일터마다에서 격식없이 벌어지고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과 지휘가 전투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도수산관리국에서는 물고기잡이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겨울철배수리준비를 예견성있게 갖추고있다. 동시에 바다가양식과 양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고기배들의 현대화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각 수산사업소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한천수산사업소와 문덕수산사업소에서는 고기배를 련속 무어내고 가마포수산사업소에서는 바다양어와 양식토대를 그쯘히 갖추기 위한 통이 큰 일판을 전개하였다.

그밖의 수산사업소들과 여러 단위들에서도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다시한번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년간계획을 끝낸 기세드높이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

신창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9월말까지 년간 물고기잡이계획과 바다나물생산계획을 1.5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정초부터 헌신적인 수산물생산전투를 벌리였다.

수산협동조합 일군들은 군당위원회와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김승열, 류재용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어로공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년초부터 배무이와 배수리를 통이 크게 전개하고 어구와 고기그물을 새로 장만하거나 수리하여 물고기잡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물고기잡이철이 다가오자 본격적인 어로전투를 벌리였다. 박창혁, 량희열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고기배별, 작업반별에 따르는 합리적인 로력배치와 작업조건보장사업을 짜고들고 수시로 변하는 어황조건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바다물온도와 흐름상태를 늘 장악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잡이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어황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기어이 물고기대풍을 마련할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고기배별, 작업반별로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물고기잡이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어로1, 2, 3작업반의 어로공들은 고기배수리정비와 어구준비를 깐지게 하고 중심어장에 재빨리 진출하여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년간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어로3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처음으로 쇠그물콩크리트배를 타고 대담하고 통이 큰 어로전을 벌려 두달 남짓한 기간에 50여t의 물고기를 잡아냄으로써 쇠그물콩크리트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세소1, 2, 3작업반의 어로공들도 작은 배를 가지고 자망, 초롱덤장, 낚시 등과 같은 어구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가까운 바다에서 여러가지 물고기를 쉬임없이 잡아냈다. 세소3, 2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어로공별, 배별로 줄기찬 물고기잡이경쟁을 벌려 년간계획을 1.5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세웠다.

수산협동조합에서는 년간 바다나물생산계획도 넘쳐 수행하였다.

일군들은 양식공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바다나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변덕스러운 바다날씨에도 양식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다시마씨붙임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고 태장관리를 깐지게 하여 계획보다 수백t의 다시마를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 양식공들은 뜻깊은 올해의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 제7차대회를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계속전진, 계속혁신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방문기

어장의 미더운 주인들이 자란다

평원수산사업소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여기는 평원수산사업소이다. 만선기를 날리며 연방 포구로 들어서는 운반선들과 안강망선들, 걸싸게 일손을 다그치며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는 종업원들로 사업소구내는 끓어번진다.

우리는 이곳 일군의 안내를 받아 과학기술보급실로 향하였다. 아담하게 꾸려진 크지 않은 방에 들어서니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어장의 주인공, 만선의 주인공이 되려는 창조의 열풍을 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람구심이 어린 로동자들의 눈빛, 현대적인 어구와 갑판설비들의 구조며 작용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강사의 열띤 목소리…

강사와 청강자들사이에 론쟁이 벌어진다.

무활개에 의한 초대형그물이 어획고를 높이는 중요한 인자는 무엇인가? 그물을 놓는 깊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싶다. …

그 물음들에 김윤철동무가 설득력있게 설명한다. 열띤 론쟁의 주인공들이 어느 단위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1선단의 선장들과 어로공들이라고 귀띔해준다.

강의의 짬시간을 리용하여 우리는 강사를 만났다. 그는 만선기를 날리며 포구에 돌아오면 어로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아무리 생산이 바쁘다고 해도 앞선 어로방법을 습득하는 사업은 한시도 중단없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대중의 열의가 얼마나 높은지 어로전투로 피로하겠지만 먼저 찾는 곳이 과학기술보급실입니다.

어로, 준비, 공무, 가공부문의 종업원들이 주별계획에 따라 물고기잡이로부터 어구, 가공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지식들을 폭넓게 습득하니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는것이 알립니다.》

그러면서 매주 진행되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과 기술학습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어기와 바다날씨조건에 따라 종업원들에 대한 강의를 실정에 맞게 교차적으로 진행하고있었다. 강의내용은 현실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과 다른 단위들의 앞선 경험, 세계적인 발전추세들이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의 앞장에 선 당, 행정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과학기술보급실이 그쯘한 설비들을 갖추고 활기있게 운영되고있는 결과 그 생활력은 크게 나타나고있었다.

전투승리는 시작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다. 사업소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올해 맡겨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 나날에 종업원들속에서 주목되는 기술혁신안들이 10여건 나왔으며 그중에서 중앙과 도적인 과학기술축전에 당선된 기술혁신안들이 여러건이나 되였다. 하나하나의 새 기술혁신안들은 다 어로공들과 공무, 준비부문의 종업원들이 착상하고 현실에 도입한것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물고기잡이와 함께 선진기술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는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더웠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바다가양식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신포재배어업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일이 잘되는 단위로 소문난 비결

한천수산협동조합 일군들의 사업에서

한천수산협동조합이 협동수산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년간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고 자체로 능력이 큰 고기배들을 무어냈다. 어구와 고기배들의 장비수준이 다른 단위에 비해 높고 전반적인 물질적토대가 그쯘히 갖추어져 일이 잘되는 단위로 손잡히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혁명적열의와 함께 관리위원장 엄승록동무의 혁신적인 일본새와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기백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만선기를 날리며 들어서는 운반선들로 붐비는 포구를 배경으로 청사와 공무기지, 어구창고, 휴식터들은 한폭의 그림같이 안겨온다. 겉볼안이라고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일터의 자랑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면 크지 않은 협동조합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어떻게 풀어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고있는가.

어로전투기간 이곳에서는 사무실성원 1명, 공무, 가공, 운수부문에서 몇명씩을 내놓고는 모두가 바다에 나간다. 남은 성원이라야 모두 합하여 열다섯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업원가족까지 합친 50여명의 로력이 크고작은 일감을 맡아 해제끼고있다.

이 로력으로 물고기가공과 부속품보장을 하면서 건설과 부업, 꾸리기를 비롯한 여러 일들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최근년간 자체로 2층으로 된 청사와 여러 생산건물들을 일떠세우고 품이 많이 드는 부두건설까지 척척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기본생산도 마찬가지이다. 단위책임일군이 직접 어구, 가공, 공무부문의 로력을 이끌고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생산조직을 짜고드니 걸린 문제가 제때에 포착되고 신속히 풀려 생산실적이 올라갔다. 고기배들의 수리정비가 어장에서 단 몇시간만에 진행되고 어구와 물고기가공으로 지장을 받는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봄철물고기잡이전투가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기본로력이 거의나 바다에 나가면 대신 협동조합은 텅 비다싶이 된다. 그렇다고 생산조직이나 전반사업에 별로 지장이 없다. 관리성원들의 겸직제를 적중하게 배합하여 수산협동조합과 중심어장에서의 생산과 자재보장, 옷단위들과의 련계를 보장하고있다.

실례로 기업소에 남은 계획일군이 생산과 자재보장 등의 업무활동을 동시에 맡아보고 자동차운전사가 공무작업을 협조하는 체계를 세워놓았고 본격적인 물고기잡이철이나 농사철에는 종업원가족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바다에서는 생산일군이 10척의 고기배들에 대한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한다.

협동조합과 포구와의 련계, 중심어장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엄승록동무가 내놓은 방안은 운반선과 자동차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운반선은 중심어장과 포구를, 물자수송을 위한 자동차는 포구와 협동조합을 련결시켜주는 수단으로 된다. 이때 단위책임일군의 위치는 중심어장의 포구이다.

하루생산실태와 요구되는 자재 및 부속품량 등의 상세한 내용들과 그에 대한 관리위원장의 최종적인 결심까지 전달하는 치밀한 사업체계는 좋은 점이 많다.

엄승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선 아래일군들의 책임성이 높아져 모든 일이 잘됩니다.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도 마음먹은대로 일판을 전개할수 있습니다.》

이 단위가 생산은 물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혁신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갈 때 어디서나 좋은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구성시 남흥협동농장 축산작업반 최현식동무는 30여년을 당세포비서로 사업하면서 당의 축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당원들과 작업반원들을 이끌어오고있다.

그는 당원들과 작업반원들속에서 축산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고 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자체의 힘으로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여러동의 축사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으며 양어장도 건설하였다.

그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앞장섰다. 모범적인 축산기지들을 찾아가 좋은 종자를 받아오기도 하고 선진기술도 배워 작업반원들에게 보급하였다.

그의 이악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지금 작업반의 축사마다에는 돼지와 풀먹는집짐승들이 욱실거리고있다.

이런 성과속에는 수십년을 당세포비서로 일하면서 작업반원들을 당의 축산정책관철에로 이끌어온 최현식동무의 숨은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로농통신원 백명진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미생물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에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보여준 훌륭한 기풍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 일떠선 흑연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가 무엇이였고 그 실현에서 자기 단위앞에 나선 과업과 수행방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주도세밀하게 작전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들고 일군들과 광범한 군중을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 흑연생산공정이 일떠서 조업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 조업한 흑연생산공정은 우리의 자원,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 생산공정이다.

얼마전 단천광업연구소에서는 광산에서 생산한 흑연정광으로 99.95%의 고순도흑연을 만들었다. 이 소식은 앞으로 광천광산에서 생산하는 흑연정광으로 천연흑연솔을 비롯한 여러가지 흑연가공제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수 있으며 또 흑연제품생산에서 세계패권을 당당히 쥘수 있다는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한 흑연생산공정의 확립은 당의 경제정책을 대하는 단천지구광업총국과 광천광산 일군들, 종업원들의 투쟁관점과 기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정책적대가 뚜렷한 작전안

3년전 새로 이관받은 광천광산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한 총국일군들은 이 지구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흑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총국에서 흑연을 개발하면 앞으로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내화벽돌의 품종을 확대해나가는데도 적극 리용할수 있었고 여러가지 천연흑연제품으로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흑연개발문제는 총국적인 화제거리로 되였다. 누구나 모여앉으면 광천광산의 흑연개발문제로 열띤 론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형편과 현행경제과업, 엄청난 로력과 자금, 자재가 들어야 하는 조건에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후에 보자는 식의 의견이 제기되였다.

어느날 무릎을 마주한 총국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유용광물개발을 놓고 잡시라도 주저한다면 조국과 인민앞에 한개 부문을 책임진 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는 심장속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문제의 초점은 흑연선광방법을 우리 식의 기술로 완성하며 선광설비를 총국산하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제작하자는데로 모아졌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경제정책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다는데로 생각을 합쳤던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아래사람들이 눈치놀음을 하는것은 책임일군들의 결심이 정책적대가 뚜렷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확고한것으로 되지 못했을 때이다. 광천광산 흑연개발문제가 토의결정된 총국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일군들은 기어이 해내야 할 무거운 짐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음을 가슴뻐근하게 느끼였다.

총국의 해당 부서일군들이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 과학자들을 찾아가 광천광산 흑연광석성분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선광기술확립을 위한 사업을 맹렬하게 벌리였다.

이러한 때 또다시 총국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산하단위 일군들의 모임에서는 광천광산의 흑연갱, 선광장건설단계와 단계별목표, 그에 따르는 력량편성과 자금, 자재보장문제가 주도세밀하게 타산된 작전안이 발표되였다.

이 작전안은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한몫하려는 의욕을 북돋아주었다.

총국산하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광천광산 흑연개발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졌다.

선광장건설을 위한 도로건설은 언제부터 시작하며 선광설비와 자재는 언제까지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제들과 함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한 흑연생산공정이 일떠서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얼마만큼 이바지할수 있다는 과학적인 수자가 안받침된 작전안은 몇백마디의 선전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광천광산 일군들과 종업원들뿐아니라 총국산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흑연개발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달라붙었다.

총국일군들의 이러한 정책적대가 뚜렷한 주도세밀한 작전안은 흑연갱과 선광장건설, 설비제작전투를 립체전으로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하였으며 총국산하 모든 기업소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깊이 새겨주었다.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이 선 조건에서 대담하게 공격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여야 끝장을 볼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대담한 공격, 완강한 실천의 담보는 무엇인가.

실력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사업조직능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이 없으면 수만공수의 로력과 방대한 량의 자금, 자재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흑연선광설비를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였다.

흑연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단위를 다녀보고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총국일군들과 광천광산 지배인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회리식부선방법을 받아들일것을 결심하였다.

회리식부선방법에 의한 흑연생산공정은 기계식보다 생산면적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능력을 높일수 있는 생산공정이였다. 게다가 광천광산의 흑연광석은 잡물이 적고 결정체가 뚜렷한것으로 하여 회리식으로 부선하면 제품의 품위도 높이면서 선광실수률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었다.

일군들의 과학적주견과 조직사업에 의하여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선광설비제작전투를 힘있게 내밀수 있었다.

총국과 광천광산 일군들이 연구사들의 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뒤받침해주었으며 광산의 기술자들을 여기에 인입시켜 흑연생산기술자력량을 키워나갔다.

방대한 건설공사도 일군들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사실 흑연갱개발을 내놓고도 선광장건설과 침전지건설공사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릉선을 따라 15리나 되는 도로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반면에 광산의 로력은 매우 긴장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총국에서는 로력편성, 운반기재동원 등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요소를 총국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우선 총국에서 조직한 김혁청년돌격대가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도로건설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광천광산 로동계급은 대형설비운반과 지붕트라스설치작업에서 기발한 착상으로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으며 녀맹원들까지 스스로 떨쳐나 로력적으로 지원하였다.

자연지리적조건으로 건축공사가 일정계획보다 처질 때에는 총국산하 단위들에서 화물자동차들을 비롯한 운반설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기도 하였다.

우리 당에서는 일군의 첫째가는 실력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건설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광산일군들은 선광설비설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자, 기능공선발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선광설비에 대한 기술적특성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비설치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부을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었다.

광산당조직의 지도밑에 공무중대 로동자들은 새로운 선광설비설치에서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총국일군들과 광산일군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러일으킨 이야기들은 많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해나가는 실력, 뚜렷한 과학적주견을 세울줄 아는 실력을 가져야 당의 경제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모든 단위들에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한 흑연생산공정을 일떠세운 단천지구광업총국과 광천광산 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당의 경제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해나간다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만세소리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아서

우리는 여기서 미래를 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총진격의 길에서 우리 조국이 맞이한 또 하나의 기쁨—미래과학자거리 새집들이,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힘과 기상을 세상에 떨치며 우주를 향해 련이어 치솟아오르는 다계단운반로케트들을 방불케 하는 황홀하고 눈부신 거리에 우리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보금자리를 폈다. 저 궁궐같은 살림집들의 주인들이 바로 우리 당이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과학자들이고 더더욱 부강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자들이기에 온 나라 인민이 그리도 기쁨에 넘쳐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것이며 오늘의 경사속에서 더 좋은 래일을 확신에 넘쳐 그려보는것이다.

새집들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오른 곳은 미래과학자거리의 가장 높은 곳—전자자리길모양으로 타래쳐오른 53층 초고층살림집의 정점이였다.

무더운 삼복철에도 시원한 바람이 그칠줄 모른다는 150여m의 정점에 오르니 충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 대동강호안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앉은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며 영화관과 상점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들, 휴식과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안겨온다.

오늘날 우리 조국이 창조하는 문명이 어느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황홀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부학부장 백청일동무의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과학기술로 조국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언제나 믿거름이 되리라 생각했던 우리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듯 문명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 수십년세월 교단을 지켜온 한 교육자의 고백이라고만 하랴. 높지 않은 교단에 한생을 얹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며 묵묵히 살아온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마련해가는 길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고 믿거름이 되여온 우리의 교육자들, 그들은 고난의 준엄한 나날에도 꿋꿋이 교정으로 걸어간 우리의 선생님들이였다.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학생들앞에 나섰고 춥고 어두운 방안에서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교수안을 작성하면서도 한순간도 딴길을 넘보지 않은 청백한 량심의 인간들이였다.

과학과 기술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으며 사심없이, 후회없이 한길을 가는 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여 세상에 둘도 없는 금방석에 앉혀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금도 어리여온다.

지난 2월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신 길로 흙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을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실 때 누구보다 가슴설레인 사람들이 바로 그 거리의 주인들이 될 교육자, 과학자들이였다. 하건만 이렇듯 눈부시고 웅장화려한 거리, 꿈에서조차 그려본적 없는 최상급 문명의 향유자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세상에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도 많고 문명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건축물들도 많다. 하지만 그 향유자가 누구였던가.

수천만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던 착취자들이였고 99%의 근로대중의 피땀으로 끊임없이 비대해지는 1%의 독점재벌들인것이다.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문명의 버림을 받고 타락과 절망의 그늘속에서 시들어가고있을 때 사회주의문명의 본보기, 후세에 길이 전할 거리를 일떠세워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통채로 안겨준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문명은 그자체로서 아름다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빛나는것이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로도 세상에 자랑할만 하지만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으로 사는 거리, 과학적진보와 문명발전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밑뿌리인 교육자, 과학자들의 보금자리인것으로 하여 세계에 제일가는 문명의 거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빛나는것이다.

위성이 감도는 지구를 형상한 상징탑을 머리에 이고 우리 인민이 누리는 문명의 높이인양 하늘높이 솟은 초고층살림집우에서 우리의 가슴을 더더욱 긍지로 부풀게 하는것은 이렇듯 거대한 문명의 재부를 그렇듯 짧은 기간에 창조해낸 우리 조국의 힘이다.

불과 1년전이였다. 행복의 돛배마냥 나란히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그때가. 그런데 그 1년사이에 웅근하나의 거리가 일떠선것이다.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제일 아름다운 문명을 한시바삐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정과 사랑이 낳은 기적의 힘, 이것이 바로 마음먹은 모든것을 최단시일내에 번개같이 일떠세우는 조선속도, 평양속도의 원천이 아니던가.

조국땅 방방곡곡에 앞을 다투며 일떠선 진주보석같은 창조의 기념비들과 더불어 희한하게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

정녕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의 눈물겨운 정과 사랑, 로고의 결정체이기에 새 살림집리용증서를 받아안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고마움의 눈물이 흐르고 불같은 맹세의 웨침이 터져나오는것이다.

여기에 서면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에는 얼마나 몰라보게 전변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넓어지고 눈앞이 밝아진다.

바로 그렇듯 휘황찬란한 미래를 안고 살라고 우리 원수님 그 이름도 미래과학자거리라고 지어주신것 아니랴.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며 세계를 본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가장 걸출한 창조의 거장을 모시고 발걸음도 힘차게 미래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래일을 본다.

오늘은 하나의 거리에 새집들이를 하였다면 가까운 래일에는 온 나라 인민이 부강조국의 크나큰 새 집에 값높은 삶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리라. 온 세계가 인류의 념원이 현실로 꽃핀 사회주의조선을 부러워하리라.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승철진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따사로운 해빛속에 꽃펴난 새 가정의 행복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최강민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있습니다.》

며칠전 우리는 새집들이기쁨에 넘쳐있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았다.

어느 집부터 찾아갈가 바재이던 우리의 발걸음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77호동 30층 3호집앞에서 멈추어졌다. 이 집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있을가. 아마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로교수나 공로있는 과학자들일것이라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소리는 마치 행복을 속삭이는 소리처럼 귀맛좋게 울리였다.

이윽고 출입문이 열리고 집주인들이 나와 따뜻이 맞아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들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였던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사 최강민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 사랑의 집을 받아안을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최강민동무의 목소리는 받아안은 사랑에 목이 메인듯 몹시 갈려있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집을 돌아보았다.

하얀 타일이 곱게 붙여진 부엌에는 주부들이 좋아하게 가시대며 장식장, 배풍기 등이 설치되여있었고 공동살림방, 자식방, 부부방 등 방만 해도 다섯칸이나 되는 집은 정말 크고 멋있었다.

침대며 쏘파, TV탁, 책장, 책상, 의자 등 10여종이나 되는 고급가구들은 방안의 품위를 한껏 돋구는듯 했다.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해 지열난방체계까지 갖추어진 살림집은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우리가 금방 집주인들과 마주앉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소리가 울리더니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이 들어와 새 집에 부족한것은 없는가 세세히 알아보며 마음쓰는것이였다. 그들이 돌아가기 바쁘게 이번에는 중년의 녀인이 초인종소리와 함께 들어서더니 가스공급소에서 공급하는 가스통을 빨리 찾아가라고 다정히 이르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정녕 새 집에 문패도 달기 전에 찾아오는 행복을 알리는 초인종소리는 끊길새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후 최강민동무와 마주앉았다.

《정말 무엇이라고 제 심정을 말해야 할지… 아직 자식이 태여나기도 전에 자식방까지 따로 꾸린 이런 멋쟁이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알고보니 이들은 얼마전에 새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였다.

고성군의 평범한 가정에서 맏자식으로 태여난 최강민동무는 당의 은정속에 대학교정에서 배움의 꿈을 꽃피우고 자기의 희망대로 관록있는 대학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자라났다.

받아안은 사랑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였는데 하며 최첨단돌파전의 1번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부부처럼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복된 삶을 받아안은것인가.

우리는 석양빛이 흘러드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웅장한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솟아오른 저 행복의 보금자리들,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오는 저 창가마다에서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압도해갈 불같은 맹세가 흘러나오리니 행복의 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이 보이는듯싶었다.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과 생활이 그 휘황한 미래속에 더욱 아름다와지리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벅차올랐다.

글 본사기자 리건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멋쟁이거리의 특색있는 봉사기지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또 하나의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져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에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꾸려진 봉사기지들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하루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여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멋쟁이이다. 서로의 특색을 자랑하는 초고층살림집들도 멋있지만 미래과학자거리의 이르는 곳마다에 꾸려진 봉사기지들 또한 얼마나 멋쟁이인가.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마주오고있는 행복에 가슴은 부풀어오른다.

리상상점, 섬광전자기구상점, 청해상점, 아침콤퓨터상점, 열풍과학기술보급사, 평천날파람상점, 봄노을상점, 류경장미원, 능수버들상점, 만복상점…

정말이지 미래의 만복이 여기 미래과학자거리에서부터 시작되는듯싶다.

우리가 손님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는 평천삼일포특산물상점에 들어섰을 때였다.

방금전 궁궐같은 새 집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던 낯익은 교육자부부의 모습이 언뜻 눈에 뜨이였다.

《새 집에 이사짐을 풀어놓고 거리구경을 나왔다가 상점에 들렸는데 너무 희한하여 발걸음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군요.》

상점안을 둘러보니 정말 그럴만도 하였다.

상점에 진렬된 제품들은 무려 200여가지,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천연특산물들로서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인기제품이라고 알려주는 교육자부부는 삼일포특산물에 대해 상당한 파악을 가지고있었다.

《…상품도 상품이지만 봉사성 또한 이를데 없으니 그냥 갈수 있습니까. 저기 서있는 판매원동무가 얼마나 례절바르고 사근사근한지 나이찬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로 삼고싶더군요.》

상점지배인 강원옥동무를 만나 판매원처녀의 기특한 소행을 전해주고서야 기쁜 마음으로 상점문을 나서는 교육자부부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상점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여러차례나 보아주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강냉이국수를 비롯하여 메밀국수, 떡국대, 강냉이막걸리 등 많은 특산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것이였다.

《우리 상점에서는 지금 미래과학자거리의 과학자, 교육자가정들을 위한 특별봉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새집들이를 한 가정들에 우리의 특산물들이 공급될것입니다.》

보는것마다, 듣는것마다 소리쳐 마중오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뿐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은정원에도 들려보았다.

지배인 고순일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10여가지의 현대적인 운동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운동실이며 온 벽체를 보석으로 장식한듯 한 소금방과 마노방을 돌아본 우리가 건식한증칸에 이르렀을 때였다.

《저 한증칸의 나무벽면에 그려진 소나무와 학을 비롯한 그림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그린것 같습니까?》

《인두화가 아닙니까.》

이윽고 지배인의 웃음어린 목소리가 뒤따랐다.

《인민군군인동무들이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누려갈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인두를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며 은은하면서도 자연미가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금시 송진내가 물씬 풍겨올듯싶은, 그림속의 학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아오를듯싶은 인두화를 우리는 보고 또 보았다.

은정원이란 이름그대로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은정과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의 땀방울이 뜨겁게 어려있는 행복의 집이였다.

정녕 사랑과 은정, 헌신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의 끝은 어디인가.

개점 첫날에만도 상점을 찾은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수백종에 수만점의 상품을 봉사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 창광상점이며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기다리고있는 류경장미원이며 만복상점…

인민의 꿈이 꿈 아닌 현실로 꽃펴났음을 부풀어오르는 가슴속에 새겨안으며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의 이야기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였다.

장정철

인민의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창광상점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수필 새 집의 열쇠

《받으십시오. 새 집의 열쇠입니다.》

두손으로도 힘에 부친듯 열쇠를 정히 받아드는 과학자의 손은 몹시도 떨렸다.

그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몇십년밖에 되지 않는 열쇠를 무겁게 받아안으며 그는 말했었다. 새 집의 열쇠를 받고보니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고.

새 집의 열쇠를 보니 불현듯 한해전의 10월 다름아닌 이 거리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새집들이날에 만났던 로교수의 이야기가 되새겨졌다.

《궁궐같은 새 집의 열쇠를 받고보니 제가 어느 한 나라에서 목격한 사실이 돌이켜집니다.》

몇년전 과학기술교류사업으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그는 우연히 살림집가격을 소개하는 광고를 보게 되였다. 집값이 너무도 엄청나 얼마나 희한한 고급주택인가 했는데 알고보니 수수한 일반주택이였다.

그런데 그에 대비할수도 없는 궁궐같은 5칸짜리 고급살림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아안았으니 로교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어느 나라에선들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꿈에서조차 생각못할 일이지요.》

정녕 그날의 로교수도, 오늘의 새집들이주인공들도 어이하여 새 집의 열쇠를 그리도 무겁게 받아안았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갱생의 대진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학자, 교원들에게 하루빨리 희한한 새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도 걸으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시울 뜨겁게 안겨온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건설을 맡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하겠다는 립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어제는 연풍과학휴양소와 같은 사랑의 금방석을 마련하여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통채로 안겨주고 나라의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가는 교원혁명가들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멋들어지게 일떠세워 세계가 부러워할 보금자리를 안겨준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목메여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산을 울리던 이 땅이다.

그 만세소리가 오늘은 락원의 강, 대동강반에 또다시 메아리쳐 울리며 과학중시, 인재중시로 일관되여온 위대한 우리 당의 력사에 또 한페지 빛나는 사랑과 믿음의 장을 아로새기였거니.

정녕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의 숭고한 뜻은 바로 새 집의 열쇠에도 비껴있는것 아니랴.

우리의 상념을 깨치려는듯 문득 경적소리가 울려왔다.

이사짐을 실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줄지어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서자 오가던 길손들이 그들을 향해 손을 저어주는것이였다.

《축하합니다!》

과학자, 교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깊이 헤아리며 그들의 고결하고 청렴한 인격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모습들, 그 눈빛마다에는 또 얼마나 커다란 믿음과 기대가 실려있는것인가.

그렇다. 위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가 어깨우에 실려있음을 피끓는 심장속에 언제나 쪼아박고 사는 미래의 개척자, 과학기술전선의 전초병들이다.

하기에 사회주의만복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최첨단과학기술의 열쇠를 먼저 생각하며 새 살림집의 열쇠를 그토록 숭엄한 자각으로 무겁게 받아드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감사의 인사, 불타는 맹세

최첨단돌파전의 1번수로

가슴벅차오르는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새집들이를 한 온 하루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평범한 과학자들을 위해 이렇듯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하여 안겨주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진정 어머니당이 우리 과학자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있는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선의 과학자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정다운 품이 있다.

나는 지난 시기 첨단급의 분석설비를 개발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주체조선의 과학자라는 신념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최첨단돌파전의 선두에서 내달리겠다. 위대한 사랑의 품에 보금자리를 편 우리 과학자들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실장 전룡진

세계여 부러워하라, 조선의 과학자들을

나의 가슴은 지금 온 세계에 대고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을 부러워하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은 충동으로 높뛰고있다. 이렇게 희한한 살림집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선뜻 믿지 못할것이다.

나는 사업상용무로 외국에도 여러번 나가보았다. 엄청나게 비싼 집값때문에 과학에 뜻을 두었지만 보금자리도 정하지 못하고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은 억만장자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있으니 우리들처럼 복받은 과학자들이 과연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진정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우리 온 가족은 사회주의만세, 로동당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나는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이 땅에 최후승리의 만세소리가 하루빨리 울려퍼지게 하겠다.

평양인쇄공업대학 실장 전승호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다 바쳐

이사짐을 풀어놓은 날 밤 나와 온 가족은 새 살림집리용증서를 보고 또 보며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다.

내 나이 일흔이 지났다. 멀고먼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어머니 우리 당으로부터 알고받은 사랑보다 모르고받은 사랑이 얼마나 더 많았던가. 평범한 농사군의 자식으로 태여난 나를 공부시켜 대학교단에 내세워준 그 믿음, 사랑 아니면 들수 없는 아픈 매도 들면서 바른길로 이끌어준 정다운 그 품속에서 나의 복받은 삶이 흘러가지 않았던가.

세 자식모두를 장학금까지 주면서 대학공부시켜준 그 대해같은 사랑만도 갚을길이 없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희한한 살림집까지 안겨주니 과연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지난 기간 후대교육사업에서 자그마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면 그것은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고 보살펴준 우리 당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쟁쟁한 인재들을 키우는 후대교육사업에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다 바쳐나가겠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강좌장 최석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재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파렴치한 언론장악책동

얼마전 남조선의 공영방송기관인 《KBS》의 사장후보로서 고대영이라는 인물이 선정되였다. 그는 이 방송회사에서 보수집권세력의 끄나불노릇을 하면서 현 집권자와 그 졸개들과 관련한 주요사건들을 축소은폐시키고 《정권편파보도》를 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는 고대영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여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혹평하고있다.

이런 청와대의 앞잡이를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것은 표면상으로는 이 방송회사의 리사회이다. 《KBS》리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였는데 그중 7명은 여권인사들이며 나머지 4명이 야권인사들이다. 그런데 여권인사 7명이 고대영을 지지하여 투표하였다. 이에 따라 《KBS》리사회의 결정을 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대영은 3년임기의 사장자리를 타고앉게 된다.

그런데 《KBS》리사회가 고대영을 사장후보로 발표하자마자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였다. 주되는 리유는 방송사장후보자선정이 현 보수집권세력이 벌리고있는 파쑈적인 언론장악소동의 산물이기때문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고대영의 사장후보임명은 청와대의 입김과 보수집권세력의 막후조종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그에 대해 언론개혁시민련대의 한 인사는 《고대영의 선출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대영은 〈근혜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장후보선출은 《KBS》를 집권세력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이 이쯤 되면 《KBS》를 철저히 어용화하고 집권유지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음모책동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수 있다.

보수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들을 길들이고 어용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주요언론기관들의 요직들에 악질보수분자들을 비롯한 저들의 앞잡이들을 들여앉히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해왔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세월》호침몰사건당시만 보아도 현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에게 불리한 이 대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외곡날조하게 하고 보도기사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구미에 맞는것들만 내보내도록 단속통제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수많은 경찰병력을 내몰아 사고현장을 봉쇄하고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취재를 극력 제한, 차단하였으며 남조선전역에서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소식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훼방을 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언론장악소동은 도수를 넘어 진보적언론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보수패당은 진보적인 언론들이 정의와 진리를 찬양하고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며 진실을 그대로 말한다고 하여 《종북매체》니, 《리적》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들씌워 탄압하고있다. 사회의 진보와 정의를 지향하며 의로운 언론활동을 벌려온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가 강제폐간된것은 남조선당국의 언론장악, 언론탄압책동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현 《KBS》 사장도 보수집권세력의 언론장악소동에 의해 사장자리를 타고앉은 인물이다. 그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가 공영방송인 《KBS》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 《락하산인사》로 고대영을 사장후보로 선출하게 한것은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더우기 최근 남조선정국을 뒤흔들고있는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KBS》 사장후보와 관련한 청와대의 《락하산인사》놀음은 그 목적과 의도가 너무도 빤드름한것으로 하여 각계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전국언론로동조합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고대영은 보도의 공정성과 자률성을 전혀 기대할수 없는 인물이자 도덕성과 자질도 없는 그야말로 권력해바라기언론인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집권세력은 《공영방송〈국정화〉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 언론단체는 성명에서 《KBS》 사장후보선정놀음은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높아가는 민중의 반〈정부〉기운을 눅잦히고 여론을 오도하여 반역정책들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였다.

전국언론로동조합 《KBS》본부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박근혜〈정권〉의 꼭두각시 락하산사장을 거부》하는 롱성투쟁에 돌입했다. 본부중앙위원들은 10월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는 사장임명에서 손을 떼라.》, 《민중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청와대거수기리사들을 동원한 공영방송〈국정화〉시도는 실패할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조선 각계가 력사교과서에 이어 방송까지 《국정화》하려는 보수집권세력의 파쑈적망동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을 거스르며 《유신》독재부활에 광분하고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본사기자 라영국

《국정화》강행을 위한 비렬한 술책

남조선에서 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날을 따라 확대되는 속에 보수집권세력이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모략적인 방법에 매달린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뉴시스》가 전한데 의하면 최근 일부 대학교수들이 발표한 력사교과서《국정화지지선언》이라는것이 실제로 당국이 조작한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인즉 력사교과서《국정화지지선언》에 참가했던 대학교수들중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를 받은것이다. 남조선교육부는 《국정화지지선언》에 참가시킬 교수인원을 교육부안의 각 부서들에 할당하고 목표를 무조건 실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어느 한 지방의 대학교수는 남조선교육부 직원으로부터 《국정화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지지선언》에 자기의 이름을 적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다.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수는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력사교과서《국정화》반대기운을 눅잦히고 저들의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혈세를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력사교과서《국정화》광고에 탕진함으로써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보수당국은 력사교과서《국정화》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44억원을 꺼내쓰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예비비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사용한 후 통보만 하면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 결국 남조선당국은 야당들이 반대해도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돈을 마음대로 탕진할수 있는 배우 교활하고 음모적인 수법을 택한것이다. 남조선교육부는 이렇게 할당받은 44억원중 22억원을 이미 력사교과서《국정화》선전을 위한 광고비로 지출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이 민중의 피땀이 스민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털어서 력사교과서《국정화》광고에 제멋대로 탕진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한 야당의원은 《위급한 시기에 써야 할 자금인 예비비에서 22억원을 2주동안에 민중이 반대하는 〈국정화〉광고비로 쏟아부었다. 이런 예산집행을 과연 누가 옳다고 보겠는가.》고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력사교과서《국정화》광고에 세금을 마구 탕진하는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데도 당국이 그에는 아랑곳없이 나머지돈을 여론전에 계속 지출하려 하고있다고 단죄규탄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력사교과서《국정화》추진을 위해 교육부를 통해 비밀조직을 비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폭로되였다. 그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국정화지지선언》을 조작한 사실과 《국정화》여론전에 세금을 마구 탕진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보수당국의 비렬한 처사에 대한 각계의 항의기운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오만과 독선의 극치》,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

남조선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대립이 날로 더욱 첨예해지고있는 속에 지난 10월 27일 현 집권자가 《국회》에서 《예산안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그 마지막 5분간은 력사교과서《국정화》와 관련한것이였다. 여기에서 그는 력사교과서《국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느니, 《옳바른 력사》니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화》를 단호히 추진시키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그의 연설장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손을 추켜들고 단호한 어조와 굳은 표정》으로 일관된 푸르딩딩한 기색이였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집권자의 《시정연설》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광범한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로서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새정치민주련합 대표 문재인은 집권자의 《시정연설》이야말로 《민중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이고 독선의 극치》라고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각계가 거리에 떨쳐나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에 합세할것을 호소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 의원인 정청래는 현 집권자가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해 손동작까지 해가며 엄한 표정으로 떠들어대는것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마치 〈유신〉시기 〈긴급조치〉포고령을 내리는것 같았다. 민중과 력사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5년짜리 〈대통령〉이 5천년력사를 마음대로 써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민중과의 싸움에서 패할것》이라고 격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집권자의 《예산안시정연설》이 실제로는 마지막 5분에 집중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것이였다고 하면서 《박정희의 1973년 연설을 그대로 베낀것》이다, 《카세트록음을 틀어놓은듯 한 연설》이였다고 비난하였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집권자가 《시정연설》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데 대해 《적반하장이다.》, 《정쟁을 〈대통령〉이 앞장에서 진두지휘》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외곡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된장인지 아닌지 찍어먹어보아야 알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천미, 독재미화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 〈뉴라이트교과서〉를 극구 찬양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동양대학교 교수 진중권은 집권자가 《국회시정연설》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드시 강행하겠다고 한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유신〉교과서를 기어코 아버지세상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장윤남

민중총궐기로 력사쿠데타에 맞설것이다, 민중을 배신한 《정권》을 심판하자

남조선 전지역에서 항의투쟁 전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4일 남조선도처에서 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고시강행에 항의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격렬히 전개되였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서울에서 당국의 조치를 반대하는 긴급시국롱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롱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당국이 3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중, 고등학교력사교과서의 발행체계를 《국정화》로 확정하여 고시를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정부》의 력사쿠데타에 맞서기 위해 이 시각부터 긴급시국롱성에 들어간다고 단체는 선언하였다.

단체는 14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통해 당국에 대항할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여 민중을 배신한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언론인 4 713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력사를 권력층의 입맛대로 기록하려는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단호히 반대하며 불복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민중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의 력사, 투쟁의 력사를 반드시 지켜내고 기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제주지부, 민주로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민중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정화》고시를 강행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의 조치를 백지화하고 나아가 《정권》을 력사의 심판대에 세울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당국이 력사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국정화》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였으며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각계층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0만명 민중총궐기를 통해 당국에 《국정화》 철회, 로동개악 중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서명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신보》창간 70돐 기념모임

도꾜에서 진행

【도꾜 11월 7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총련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창간 70돐 기념모임이 6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배익주부의장,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로동신문사를 비롯한 조국의 출판보도기관들과 해외동포사업국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허종만의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신보》의 전신인 《민중신문》이 해방을 맞은지 두달도 안되는 1945년 10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애족애국운동을 벌려나가는 재일동포들의 참된 투쟁모습을 알리는 신문으로 첫 고고성을 울린 때로부터 어언 7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신보》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조선신보》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편집방향에 이르기까지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신보사 일군들이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신보》의 견인력을 높여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애족애국운동에서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박일 조선신보사 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총련을 결성해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발전과 함께 조선신보사의 사업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애족애국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신보》가 창간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이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애국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사상적무기, 자기들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대변자를 가지게 되였다고 피력하였다.

《조선신보》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위대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혁명령도와 위인상을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조선신보》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기관지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조선신보》를 편집발행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이날 《조선신보》창간 70돐과 관련하여 연회가 있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일 일본의 과거침략범죄청산과 관련한 일본과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처사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이날 남조선과 일본 집권자들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회담결과를 놓고 남조선 《정부》의 무능과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얼핏 보면 이번 합의에 성노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긴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여기서 말하는 타결이란 어떤것인지 알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알맹이가 빠져버린 회담이 되고말았다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일본당국의 뻔뻔한 력사외곡과 책임회피행위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조차 하지 못하던 현 《정부》가 일단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보자는 립장에서 가진 회담이다보니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국민들앞에 내놓은 결과라는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은 정대협이 주장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의 원칙은 과거침략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남조선《정부》는 성노예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급격히 퍼지는 질병으로 불안에 휩싸인 남조선

남조선 《MBC》, 《KBS》방송들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호흡기성질병이 급속히 퍼져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폐염증상이 나타나는 이 질병은 지난 10월 19일 건국대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실험실을 리용한 3명의 대학원생들이 폐염증상을 호소하였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21명으로 증가하였다.

2일현재 병에 걸린 환자가 52명에 이르렀다 한다.

아직까지 감염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호흡기성질병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있어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커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청소년교양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뿌찐이 전로사회국가청소년조직 《로씨야학생운동》을 창설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조직의 창설목적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교양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완성하고 그들을 《로씨야사회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로 육성하기 위한데 있다. 《로씨야사회의 고유한 가치관》은 애국주의, 어른들에 대한 존경, 친절성, 인정미, 정의감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서 《로씨야학생운동》이 창설된데 대한 정계, 사회계의 반향이 대단하다.

통일로씨야당출신 국가회의 대의원은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을 제대로 교양할수 있게 되여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축하하였다. 대통령공보판은 《뻬오네르조직과 공청의 긍정적인 경험들은 〈로씨야학생운동〉의 활동에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로씨야학생운동》의 창설이 청소년교양을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것이다. 특히 여론들은 뿌찐대통령이 이전 쏘련시기 공청이 창립된 날에 새로운 청소년조직의 창설을 선포한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뻬오네르조직과 공청의 부활을 의미한다는데 그루를 박았다.

로씨야에서의 청소년조직의 새로운 등장은 이전 쏘련시기의 력사와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쏘련시기 공청원들은 용감성과 난관극복정신의 대명사였으며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성의 소유자들이였다. 마므로쏘브와 같이 적의 화구를 막은 조국전쟁시기의 영웅도,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의 주인공과 같은 인간들도 그들속에 있었다. 《공청도시》로 불리우는 로씨야의 항구도시 꼼쏘몰스크—나—아무레시도 이런 훌륭한 청년들에 의하여 태여났다.

오늘도 이전 쏘련시기 뻬오네르들과 공청원들이 발휘한 높은 혁명성과 규률성, 조직성, 애국주의, 고상한 도덕품성은 강력한 국가건설을 지향하고있는 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로씨야가 청소년들을 국가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로씨야가 청소년교양에서 가장 힘을 넣고있는것은 애국주의교양이다.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지 않고서는 국가가 존재할수 없으며 안으로부터 쉽게 붕괴될수 있다는것이 로씨야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로씨야는 하바롭스크변강의 모든 구역들에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거점을 꾸릴데 대해 결정하였다. 이곳에서는 주로 초모전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로씨야정부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든, 체육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그 밑바탕에는 애국주의가 있다는것을 자각하도록 교양하고있다.

뿌찐대통령이 지난 9월 전로학생《대통령체육대회》에서 한 연설이 그것을 엿볼수 있게 한다. 그는 전체 경기참가자들이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자기 팀, 자기 학교, 자기 고향도시의 명예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청년연단을 사회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여기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청년연단이 교육, 과학,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호상교류를 강화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있다.

젊은 학자, 연구생, 교원, 애국주의단체대표 등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로청년교육연단이 진행되였다. 뿌찐대통령이 참석한 이 연단에서는 《로씨야의 원동:발전의 길》, 《인적자본: 로씨야발전의 잠재력》 등의 주제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로씨야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차지하는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있다. 정부는 그들속에서 수많은 정보기술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라고있다. 국가에서 관심하고있는 과학연구사업들에 청년전문가들을 인입시켜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청소년교양사업을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려는 이 나라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송영

분노의 폭발—《오끼나와를 반환하라!》

쌓이고쌓인 원한이 마침내 분노의 활화산으로 터졌다.

지난 10월 30일 일본 오끼나와현 나고시 헤노꼬에서 약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롱성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는 일미당국이 오끼나와현 기노완시의 후텐마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이설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작한 다음날에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공사가 한창인 이설기지앞에 서로서로 팔을 끼고 버티고앉아 기지건설을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오끼나와평화쎈터의 한 성원이 《오끼나와현민들의 분노를 알리자. 란폭한 정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웨치자 시위자들은 《오끼나와를 반환하라》라는 노래로 그에 호응해나섰다.

이날의 시위로 오끼나와현민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절절히 소망하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끼나와를 반환하라!》, 이 웨침에 그것이 다 반영되여있다.

미군이 없는 오끼나와에서 마음편히 살려는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숙망이다.

어느 나라라 할것없이 해당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기지들이 불행과 화근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것을 놓고볼 때 주일미군기지의 74%가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에서 세차게 일고있는 미군기지반대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일미군은 오끼나와에 너무도 가슴아픈 상처만을 남기고있다. 밤낮없이 뜨고내리는 미군비행기들때문에 소음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얼마이며 미군에 의한 살인과 강도행위 등으로 민간인들이 입는 피해는 또 얼마인가. 미군기지건설을 위해 진행되는 매립공사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오염 또한 말이 아니다. 미군의 죄행은 이뿐이 아니다.

현재 오끼나와에는 수많은 《아메라지안》들이 살고있다. 《아메라지안》, 이 생소한 말속에도 주일미군의 범죄적진상이 담겨져있다. 《아메라지안》이란 미군이 남긴 사생아들을 의미한다. 오끼나와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저들의 수욕을 채우고 빠젓이 달아나버리군 하는 미군때문에 국적도 명백치 않은 사생아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참을수 없는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려는것은 이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닌 전체 일본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오끼나와에서 벌어진 시위에 미군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75살 난 한 늙은이가 참가한 사실만 봐도 잘 알수 있다.

오끼나와현정부는 지금 매립공사를 반대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헤노꼬에서의 매립승인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공사를 지연시킬수 있는 대항수단으로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현외로부터의 흙, 모래반입을 규제한 현의 조례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였다.

오끼나와현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고 하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대미추종에 푹 젖어있는 일본당국자들때문이다. 처음부터 매립승인은 법률에 기초하여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느니 뭐니 하며 탈가와하지 않은 일본정부는 매립승인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오끼나와현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당국자들은 미군기지이설공사를 추진하는것이 오끼나와현민들의 심정에 대답하는것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미집권층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와 신통히도 일맥상통한것으로서 현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하면서 매립공사를 끝까지 반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오끼나와지역 주민들의 항의행동은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끼나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주려 하지 않는다. 그저 강권으로 민심을 마구 억누르기만 하고있다.

과연 정부는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하려 하는가.

분노한 오끼나와는, 상처입은 민심은 당국에 이렇게 묻고있다.

하지만 일본당국자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제국》을 부활시킬 야심만 가득차있을뿐 민심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어리석은자들이 일본을 다스리는 한 이 나라 국민들의 불행과 고통, 수치와 모욕의 력사는 끝나지 않을것이다. 민심을 등진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분노의 항거뿐이다.

본사기자

ㄱ-51176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